

# “정개특위·사개특위 활동기간 연장 추진”

### 여야 4당 공조 오늘 본회의 바른미래 “모든 일정 진행” 한국당, 비상사태 선포 소속 의원 국회 대기령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27일 오후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정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당장, 자유한국당은 28일 본회의의 개최를 저지하기 위해 자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대기령을 내리는 등 비상 사태를 선언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문에 의거해 내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을 추진하겠다”며 “다음 주에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교체가 필요한 7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지당 묶인 운영·기획재정·행정안전·여성가족위원장 선출을 본회의 의결을 통해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국당 묶인 예결위원장 교체를 포함한 예결위 구성은 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은 민주당의 고민거리다.

민주당은 또 파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다룰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에 나섰다는 방침이다.

두 특위의 활동시한은 이달 30일이지만, 주말(29일)과 휴일(30일)을 고려하면 사실상 28일이 특위 마지막 날이기 때문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내일 정개

특위, 사개특위 연장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의 전 운영위원회를 열어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공조로 특위 연장 안건을 의결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재협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6월 국회 일정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대표 간 합의가 의원총회 추인을 전제로 한 조건부라는 것을 3당 원내대표가 공식적

으로 언급했음에도 이 무효가 된 합의를 근거로 본회의마저 강행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28일 본회의의 개최 가능성에 대해 비례 의원들에게 나 원내대표 명의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국회 대기령을 내렸다.

하지만 한국당은 큰 틀에서 6월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면서도 대야 공세가 가능한 상임위원회의 선별적 참여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해 조건 없이 선제적으로 국회에 등원해야 한다는 ‘백지 등원’ 의견도 당내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어 극적인 합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합의안대로 6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민주당과 보조를 맞췄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6월 임시국회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어 “활동기간이 임박한 정개특위, 사개특위 연장을 위한 원포인트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지만, 한국당의 거부로 회동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내일 본회의에서 여야 4당 의결로 특위 연장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황교안, 엉덩이춤 책임지고 사퇴하라”

### 여야 4당 한목소리 질타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27일 한국당 여성 당원 행사에서 ‘엉덩이춤’ 논란이 된 데 대해 일제히 ‘성인인 감수성’ 부족을 질타했다.

한국당은 전날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우먼 페스타’ 행사를 개최했는데, 경남도당팀 참가자 일부가 장기자랑 도중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리고 ‘한국당 승리’라고 한 글자씩 적힌 속옷을 연상케 하는 반바지 차림으로 엉덩이춤을 취 물의를 빚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혜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달창이라는 말을 원내대표가 공개 집회에서 서슴없이 했던 일을 떠올리면 그 지도부에 그 당원”이라며 “성감제(성인인 감수성 제) 한국당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더 황당한 것은 행사 후에 보인 태도”라며 “한국당은 주춤 사과도 없이 변명에 급급했고, 비판이 억울하다는 행변 같은 입장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막말이라고 하는 바로 그 말이

막말’이라고 강변한 황교안 대표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태도가 한국당을 ‘사능제’(사과 능력 제)로 정당으로 만들고 있다”며 “국민께 폐를 끼쳤으면 제대로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김경화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민망함을 넘어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폭력적 성인인’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이 우스운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인가”라고 개탄했다. 김 대변인은 “경솔하고 천박한 제1야당의 수준에 매일매일 놀란다”며 “동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수치스럽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은 즉각 자질행사 개최를 국민에게 사과하라”며 “자질 퍼포먼스를 막기는커녕 격려까지 한 황교안 대표의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 가등을 막아 민생에 뒷짐 진 것도 모자라 고작 여성을 희화화하고 도구화하는 퍼포먼스를 독려하고 앉아있는 것이 한국당이 승리로 가는 길인가”라고 반문했다. /연합뉴스

# 민주 28~29일 총선 공천률 당원투표

### 12만명 미만 참여시 무효... 지도부, 투표율 높이기 총력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 공천률을 확정하기 위한 권리당원 찬반 투표를 28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8시까지 진행한다. 공천률 확정 과정에 모든 권리당원이 참여하는 이른바 ‘당원 플랫폼’을 통한 상향식 시스템 공천의 첫 시험이다. 권리당원들은 투표 기간 ‘당원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투표를 한다.

민주당은 이번 투표 결과와 7월 1일 중앙위원회 결과를 50%씩 반영해 공천된다. 문제는 권리당원 20%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투표 결과가 효력을 얻는다는 점이다. 현재 민주당 권리당원은 60만명 가량으로, 12만명 이상이 투표하지 않으면 투표 자체가 무효가 된다. 투표

가 무효가 되더라도 중앙위원회 결과를 100% 반영해 특별당규를 확정하므로 공천률 결정에는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당원 플랫폼을 통한 상향식 시스템 공천은 이해찬 대표 체제의 핵심 공약으로,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첫 시도부터 안정적으로 성공시켜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전날부터 투표를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민주당 지도부는 각 시도당과 지역위원회를 권리당원 투표 독려를 긴급 지시했고, 유튜브 채널 ‘썸’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장구를 통해 투표 참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 “검찰 개혁 마무리” vs “검찰의 정권 시녀화”

### 여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장관 기용설 놓고 공방

여야는 27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법무부 장관 기용설을 놓고 팽팽한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조 수석이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며 “조국 법무부 장관-윤석열 검찰총장 체제”를 구축해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대통령께서 조국-윤석열 체제를 구상한다면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이란 두 목표를 동시에 추진할 수

없지 않겠나”라며 “조 수석의 기용이 오히려 소모적 논란을 일으켜 여권에 부담으로 작용, 오히려 사법 개혁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은 무리한 인사라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조 수석의 기용이 오히려 소모적 논란을 일으켜 여권에 부담으로 작용, 오히려 사법 개혁이 더 어려워지는 것

은 물론 총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날 조 수석 입각 가능성을 ‘선전포고’라며 강력하게 반발한 자유한국당은 조 수석의 자질문을 꺼내 드는 한편 문재인 정권이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려 한다고 맹비난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수석은 인사검증에 실패해 계속 문제를 일으킨 분”이라며 “그런 분이 중요 처장 후보로 거명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만약 그렇게 추진한다면 그것은 이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을 법무부 장관에 앉겠다는 건 이 정권이 가장 경멸했던 ‘검찰의 정권 시녀화’ 아니냐”며 청와대의 사법 장악 가능성을 우려했다.

민주당과 연대에 나서는 야당들의 반응도 시큰둥하다. 바른미래당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 내각이 조 수석의 ‘직업 체임의 장’으로 전락했다”며 “항랑 미달 인사로 법무부를 초도화할 생각은 접어라”고 꼬집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YTN 인터뷰에서 “조 수석이 사법개혁을 잘못된 방향으로 추진하려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법무부 장관으로는 능력이 부족하고 철학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科目	金額	科目	金額
Ⅰ. 流動資産	16,020,338,911	Ⅰ. 流動負債	2,276,244,770
(1) 當座資産	13,121,400,072	1. 買入債務	912,262,717
1. 現金及現金性資産	2,672,633,607	2. 未支給金	577,524,301
2. 短期金融商品	5,312,002,399	3. 預受	93,344,862
3. 賣出債權	4,665,280,595	4. 未支給費用	693,112,890
4. 未收現金	▲46,652,806	5. 當期法人稅負債	0
5. 未收費用	23,507,016	Ⅱ. 非流動負債	626,514,587
6. 未受現金	▲235,071	1. 退職給與充當負債	5,663,052,944
7. 未受費用	40,067,464	2. 國庫金轉換金	▲1,932,100
8. 先給費用	8,307,840	3. 退職年金運用資産	▲5,095,076,369
9. 其他の當座資産	19,297,872	4. 移延法人稅負債	60,470,112
10. 其他の當座負債	289,072,033	負債總計	2,902,759,357
11. 未收法人稅還給額	15,639,280	Ⅰ. 資本	11,900,000,000
12. 流動性移延法人稅負債	122,479,863	1. 普通株資本	11,900,000,000
(2) 在庫資産	2,898,938,839	Ⅱ. 利益剰餘金	11,600,866,692
1. 製成品	532,390,116	1. 法定積立金	712,850,000
2. 在工品	▲10,638,170	2. 任意積立金	453,000,000
3. 原材料	582,756,289	3. 未處分利益剰餘金	10,435,016,692
4. 原料材料	1,749,532,267	資本總計	23,500,866,692
5. 未着材料	▲36,826,214		
6. 未着材料	74,703,626		
7. 未着材料	2,851,425		
8. 未着材料	4,168,500		
9. 未着材料	4,168,500		
10. 未着材料	4,168,500		
11. 未着材料	4,168,500		
12. 未着材料	4,168,500		
Ⅱ. 非流動資産	10,383,287,138		
(1) 有形資産	10,383,111,138		
1. 土地	418,550,541		
2. 建物	9,966,605,572		
3. 減價却累計額	▲4,238,335,864		
4. 構築物	2,376,319,574		
5. 減價却累計額	▲930,357,471		
6. 機械装置	21,492,800,291		
7. 減價却累計額	▲19,278,741,557		
8. 運搬器具	352,496,443		
9. 減價却累計額	▲349,010,243		
10. 工具器具	2,151,749,408		
11. 減價却累計額	▲1,844,324,211		
12. 備品	1,172,549,219		
13. 減價却累計額	▲1,144,418,205		
14. 建設中資産	237,227,641		
(2) 其他非流動資産	176,000		
1. 保費	176,000		
資産總計	26,403,626,049	負債及資本總計	26,403,626,049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 이웃을 위한 따뜻한 손길

### 어르신 돌봄은행이 함께합니다!

“이제는 자원봉사도 저축이 된다”

**어르신 돌봄은행이란?**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돌봄활동을 제공하면 이를 돌봄포인트로 적립·관리하고, 만 65세 이후에 본인·가족·제3자가 돌봄활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돌봄봉사자 모집**  
● 돌봄봉사자 자격: 만 13세이상, 2인 1조 활동 권고, 4시간 교육 필수(교육시간도 포인트 혜택)  
● 돌봄봉사자 혜택  
- 돌봄활동 1시간당 1포인트 적용(적립 및 사용)  
- 돌봄활동 시간 VMS 연계 적립  
- 돌봄포인트 적립 시 의무기부 20%  
- 적립한 포인트는 가족과 제3자에게 기부 가능  
● 돌봄활동 범위  
- 인지활동: 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주택안전관리 등  
● 돌봄봉사자 기초관리교육: 수시 모집

**돌봄대상자는?**  
● 어르신 돌봄은행에 회원등록한 만 65세이상의 어르신 중 전문가가 돌봄활동 제공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자이거나, 만 40세 이후 본인이 직접한 돌봄포인트와 기부받은 포인트의 합계가 100포인트 이상인 어르신  
● 돌봄서비스 범위: 인지활동·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주택 안전관리 등

문의: 동구노인종합복지관 www.noin.or.kr ☎ 062-232-4953

1688-3579 (전국 50개 시군구소재)

보건복지부 SSN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지붕공사**  
슬라브 옥상, 주택, 상가  
원룸, 데스리, 한옥 등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최신품법의 특수 방수!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냉난방비 절감 효과!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